

이기는 삶



활력의 리더십 태조 이성계

함경도 지역 동북면의 일개 무장에 불과하던 이성계(李成桂)가 정국을 주도하는 리더로 거듭난 배경은 누구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낸 것이었다. 정몽주(鄭夢周)가 선비로서 학문과 인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었다면 이성계는 무장으로써 군계일화의 실력을 마음껏 드러냈다.

1361년 10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독로 강만호(尙魯 江萬戶) 박의(朴義)를 죽이고, 같은 해 흥건적이 침입해 수도가 함락되자 이듬해 이를 탈환하는 데 앞장서 젊은 무장 이성계의 이름을 조야에 깊숙이 각인시켰다. 특히 1362년 함흥평야에서 일어난 원나라 나하추와의 전투, 1377년 경상도 일대와 지리산에서 노략질을 해대던 왜구와의 전투, 1380년 운봉에서 벌어진 왜장 아가발도와의 혈전 등에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압승을 거두면서 조정의 핵심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다.

난국에서 그가 보여준 전쟁터에서의 모범적이고 희생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깊이 다가서게 했고 이런 호의적인 여론은 점차 그의 역성혁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 됐다. 예로부터 국제정세에 민감한 인물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성계는 정국의 지도자가 되면서 원(元)과 명(明)이 세대교체를 이뤄가던 중원의 혼란기에 단연코 명나라의 우세를 전망하고 고려의 친원정책(親元政策)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정몽주까지 가해 친명파(親明派)로서 단숨에 정국을 주도하게 됐다. 이성계는 '활력'이 가득한 사림이었다. 그와 있으면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은 긍정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인물이었다. 거기에 이성계의 성격은 진중하고 침착했다. 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산과 같은 든든함이 그에게서 발산되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라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장점을 가진 것이다.

최고의 기획자 정도전(鄭道傳)이 이성계를 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도전은 42세가 되던 1383년 가을, 스스로 합주(합흥)에 있던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의 군영(軍營)을 찾아갔다. 이성계는 그와 이야기하면서 한눈에 최고 인재로서의 정도전을 알게 됐음을 직감했다. 정도전은 자신의 성격과 빼어난 실력 때문에 견제를 받아서 여러 사람과 불화했고 급기야 고려 조정에서도 쫓겨난 인물이었으나 이성계는 마음을 열고 그를 존중하고 책사로 귀하게 대접했다.

여기에 조준, 배극렴, 권람 등의 선비들과 여말 최고의 무장이라 불리던 여진족 출신의 장군 이지란 등 혁혁한 인물들 수십 명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특히 이지란은 변방의 위기 때마다 현장에서 달려가 수습하고 돌아오는 등 이성계의 오른팔로 의형제를 맺을 정도의 친밀함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최고의 실천형 지도자이자 기획자 이방원(李芳遠)이 그의 아들로 든든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니 이성계야말로 모여든 인물만으로도 한 나라를 세우고도 남을 최고의 지도자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했다. 이로써 부를 지나치게 쌓아 빈부간의 격차를 갈수록 벌려 놓았던 고려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됐다. 힘으로가 아닌 기획 싸움에서 그는 이미 고려 구신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미 위화도 회군에서 이성계는 강한 결단력과 집중력을 선보인 바 있었기에 조선 개국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왕조를 바꾸는 놀라운 결단을 실천에 옮기게 됐다.

이를 위해 이성계는 전 왕조(고려)의 역사를 새로 편찬하고 새로운 조선 왕조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등, 건국 7년 안에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장비를 서둘러 완료하게 했다. 그리고 권력에서 물러나 새 왕조의 안일을 기원하는 후원자로 들어왔다. 이 같은 통치 형태는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것으로, 정치적 탐심이나 사욕이 없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00년 역사의 유구한 조선이 그 시대에 탄생한 것은 이성계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활력과 확신에 가득 찬 지혜로운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승리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평소에 자제만 바로 잡아도 실제 더 힘이 세진 것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어깨를 짝 펴고, 가슴을 들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매일 꾸준히 근력이 강화되어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② ①번에서 안정되었으면 양손을 놓고 숨을 마시면서 팔을 앞으로 쭉 펴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어깨를 짝 펴고, 가슴을 들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매일 꾸준히 근력이 강화되어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숨을 크게 마시면서 발목을 안쪽으로 잡는다. 양발을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끌어올려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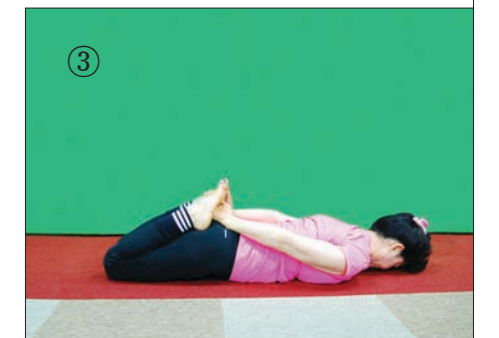
**효능:** 어깨 발목 골반 강화, 가슴 발달, 내장기능 개선, 위 경락을 자극해서 소화기능 개선, 척추강화, 노화예방, 대장, 소장, 간, 방광을 튼튼하게 해준다.\*

보트자세

① **단계별 동작:** 양다리를 붙이고 앉는다. 무릎을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 위치시킨다. 코로 숨을 마시며 양손으로 무릎 뒤 오금을 잡고, 숨을 내쉬며 복부를 수축한다. 발바닥을 바닥에서 들어 균형을 잡는다. 종아리와 허벅지가 직각이 되도록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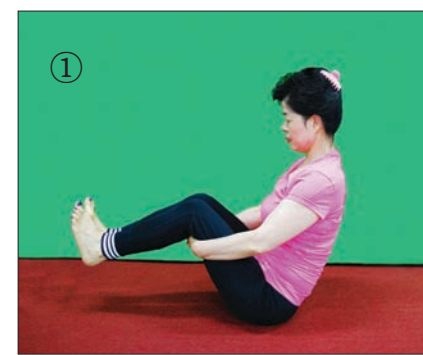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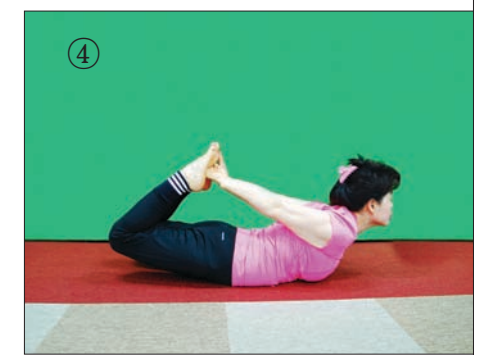
**효능:** 배 등 허벅지 앞부분 골반 구부릴 때 요구되는 근육 강화, 몸의 균형감 집중력 향상, 어깨 불균형 해소. ① ②번 동일함

**주의:** 상체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한다. 척추를 바르게 펴준다. ① ②번 동일함



활 자세

③ **단계별 동작:**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등 뒤에서 다리를 하나씩 접어서 발목을 안쪽으로 잡는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도덕경 해설

도덕경 57장 해설

요즘을 정치로 보면 장 탄식이 나온다. 희망이 안 보인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 노 코멘트, 답이 없다는 것이다. 또 손사래를 친다.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꾼은 많은데 참다운 정치인이 없다는 하나같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도 우습다. 이 세상에 도가 없어서 벌어지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무도한 세상에서 아무리 엄한 법을 세우고 제도를 강제해도 무도인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묘히 빠져나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기어이 채우고 만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돈이 최고요, 자신의 부귀영달만이 진정한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무도한 사회는 점점 더 법과 제도로 인간 스스로를 옥죄는다. 인간의 자유한 본성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부자유하고 갑갑한 세상으로 바뀌어 간다. 세상이 말할 수 없이 각박하고 냉랭하여 황량하다.

어떻게 하여야 이 참담한 세상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 도덕을 바로 세우고, 도덕군자가 되고, 예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도덕경도 많이 읽어야 한다.

도덕은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마음과 행실이다. 해서 도덕이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려면 인간으로서 무슨 마음을 먹어야 하고, 어떤 행실을 하여야 할지를 분별하여 이는 참다운 삶, 밝은 지혜가 우선적으로 함양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 지식(善知識)이요, 복음이요, 진리이다. 꼭 종교의 논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我无爲也 而民自化

아무위야 이민자화 / 내가 무위하니 백성들이 따라서 자연스레 동화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이 쉽게 떠올리는 대안으로 어떤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를 수립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더욱 아니다. 길은 오직 한 가지 참다운 사람, 진인(真人)이나 도인이 이 사회의 지도자나 스승이 되어야만 비탄에 빠진 사회적 도덕과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극기복례(克己復禮)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조절하고 극복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아는 도덕군자, 성인, 도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이상세계, 태평천하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하나의 맑은 물이 흘러서 아무리 아랫물이 맑아지려 해도 뒷물에

서 지구 구성물이 되어 내려오는데 가 능이나 하겠는가! 그래서 사회적 지도자나 스승, 어른이 바로서면 머리가 바로 서는 것과 같아서 수족과 같은 국민들은 머리가 시키는 데 따라 잘 움직이게 되어 있다. 꼭 사회적 지도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도덕이 기 본적으로 함양되어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을 초월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할 줄 아는 도덕군자가 진정한 정치지도자나 이 사회의 큰 스승으로서 추대되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불가항할 것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의 세태가 변하여 지상선국, 이상향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경에서는 더더욱 왕이나 지도자는 도덕을 충실히 따르고 행하는 것을 제일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옛 성인(도인)의 말씀이 오늘 현실에 큰 스승이 되어 생생하게 살아역사하는 일갈(一喝)이 되어 도덕경 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以正治邦**(이정치방):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以奇用兵**(이기용병): 기이한 용병으로써 군사를 부리기도 하지만,

**以无事取天下**(이무사취천하): 무사(無事)로써 천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오.

**吾何以知其然也哉**(오하이지기연야재): 내가 어찌 하여그런 줄 알겠소?

**夫天下多忌讳 而民彌叛**(부천하 다기회 이민미반): 대저 천하에 꺼려하고 싫어할 일들이 많으면 백성들이 두루 반발할 것이고

**民多利器 而邦家滋昏**(민다리기 이방가자혼): 백성들이 많은 이기(문명의 이기)를 가질수록 나라는 더 혼란이 가중된다

**人多知 而奇物滋起**(인다지 이기물자기):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法物滋章 而盜賊多有**(법물자장 이도적다유): 법으로 막는 물건들이 더 많아지고 도적들도 많아진다

**是以聖人之言曰**(시이성인지언왈):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는 것이다

**我无爲也 而民自化**(아무위야 이민자화): 내가 무위하니 백성들이 따라서 자연스레 동화되고

**我好靜 而民自正**(아호정 이민자정):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도 자연스레 바르게 되고

**我无事 而民自富**(아무사 이민자부):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해지며

**我欲不欲 而民自樸**(아욕불욕 이민자박): 내가 욕심 없음을 바라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지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멸평한 인간을 왜 죄인(마귀의 종)이라고 부르는가?

이 세상 만물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인간의 조상이 마귀에게 패하면서 아담과 해와의 주체 영이 마귀로 변하여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욕심이 임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으니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요, 나라의 주체의 식이 욕심 부림으로 내가 죄요 사람의 영인 셈이다. 따라서 나라는 인간이 죄인인 것이다.

인간 자체가 마귀 욕에 갇혀 있으므로 영적으로는 무덤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을 마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양심)이 주체 영인 마귀의 지배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 영이 마귀의 영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은 꼭두각시놀음을 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양심과 비양심의 공존체인데 인간은 구조상 2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약자인 하나님이 강자인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을 달린 우주 또는 소우주라고 평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립자 차원에서 평가할 때 온 우주에 퍼져있는 미

립자(원자, 영혼)가 99.9999%, 인간의 육체에 남아있는 미립자는 0.0001%에 불과하므로 우주가 곧 영혼이며 육체 속에는 그 부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원자)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속세(俗世)의 속(俗)은 인간의 마음 속의 계곡과 같이 어두운 마음을 뜻하는 말이므로 속세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한다. 실낙원(失樂園)이란 6천 년 전에 무너진 에덴동산을 뜻하며, 실낙원 이 필요로 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권 편집인 김준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부산제단 : (051)863-6307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대전제단 : (042)522-1560	神戸祭壇 : (078)862-9522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수원제단 : (031)236-8465	영도제단 : (010)6692-758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청주제단 : (043)233-6146	下關祭壇 : (0832)32-1988	Philadelphia : (215)722-2902	
안성제단 : (031) 673-4635	김해제단 : (055)327-2072	진해제단 : (055)544-7464	진주시제단 : (063)533-7125	충주제단 : 010-9980-5805	久留米祭壇 : (0942)21-4669		
평택제단 : (031)652-6438	대구제단 : (054)474-7900	영천제단 : (054)8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금마제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족제단 : (031)672-6786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55-4270	광주제단 : (062)524-4555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